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6호 [루게 제24519호] 주제 103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이한 전체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다.

15일 각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으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담은 군중들의 물결이 끊없이 굽이쳐 흘렀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부,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어 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진선 평양지구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 있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곳곳에 모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도 다함없는 경모의 꽃물결이 흘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김정은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영생하시는 수령 김일성각하의 탄생일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그리고 친근한 각하의 온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드라운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알아사드

2014년 4월 14일

디마스끄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당과 국가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평양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태양절을 맞으며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과, 당, 정전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5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세출의 위인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있었다.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명도,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호의의 정이 어릴 혼창보존심들과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 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심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어버이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 과의 리를 다해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주조 무관단,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대표단, 적십자 국제위원회대표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대표단, 적십자 국제위원회대표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4일 무관단 단장인 하산 페자 히예이니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단 인민무력부장 장정남동지에게,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대표단 단장 카리 유하니 이소마와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 단장 데리 아르만 므나트싸까냐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로씨야 《포름》도서출판사에서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세이 크 라피를 이슬람 바블루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알하산 뎀 멘 무함마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선물을 드리었다.

연구보급협력회대표단의 공동명의로 로씨야 《포름》도서출판사에서 선물이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나미비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소조 위원장과 네팔자력갱생연구회 대표단, 이탈리아주체사상연구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었다.

선물들이 14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타이조선친선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포름》도서출판사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울라지미르 쇠호브 로씨야 《포름》도서출판사 사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 김정은각하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봄날의 꽃들이 향기롭기며 활짝 피어나는 뜻깊은 4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평양에 모여 김정은각하의 사랑과 은정을 몸가까지 느끼면서 김일성주체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를 의의있게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시대입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김일성주체와 김정일총서주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사상이며 오늘 세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입니다.  
세계인민들의 투쟁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조직들이 려이어 조직되고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열심히 배우고있습니다.  
오늘 매개 나라와 민족들은 자주를 들고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반동세력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승리의 길로 전진하고있습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멀망의 길을 걷고있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최후의 철추를 내리시는 반제반미투쟁의 기치이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걸고 싸우는 세계인민들의 모범으로 되고계십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에는 핵무력으로 대담하시어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고히 수호하고계십니다.  
자주성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모습은 세계의 자주력량을 크게 고무하고있으며 시대의 기본흐름을 밝혀주고있습니다.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정일총서사상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길을 가리켜 주시였으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은 김정은각하에 의해 계승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김정은각하의 자애로운 모습은 언제나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으며 각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은 가슴을 울리는 수많은 일화들을 남기고있습니다.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이 놀라운 속도로 전진하고있는것도 김정은각하와 조선인민들의 뉴대가 얼마나 강한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들과 같은 세기를 살며 자기 나라와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조선인민과 굳게 련대하며 세계인민들속에 김정은각하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기 위하여 《김정은저작집》을 발행하는 등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자기 나라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저희들은 전세계주체사상신봉자들의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부디 안녕하시고 건강하시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해주고 이끌어주시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 참가자일동

2014년 4월 14일

평양

# 선군조선의 앞날을 축복하는 위대한 태양의 미소

##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 넘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봄빛같은 이 땅에 4월 15일이 왔다. 피어난 한뼉의 꽃송이도, 불어오는 한줄기의 바람결도 절세의 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젖어들게 하는 태양절이다. 경사로를 이 날을 떠나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민족의 지난 100년사를 어찌 생각할 수 있으며 더욱 강성하고 번영할 선군조선의 패일을 어떻게 략관할 수 있랴.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어머니수령님이 그리워 달려오는 사람들로 끝없이 물결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격동의 우리 시대에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어떻게 즐기치게 호르고있는가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감동깊이 전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민족과 전세계가 우리리받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스러운 후손만대의 행복이다.》

대원수님 찬란히 빛나는 돌레문을 지나 각계층 인민들이 앞을 다투며 광장으로 들어섰다.

공화국기가 광공놀이 휘날리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정면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르른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비껴 있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전사, 제자들을 어서 오라 부르시는듯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

한없이 인자하신 어머니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며 삼가 인사드리시는 사람들 속에는 손자, 손녀의 손목을 잡고는 전성로병도 있고 저 멀리 방에서 온 인민군인들, 로동자, 농민, 과학자 그리고 림블한 청년대학생들과 소년단원들도 있었다.

어머니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긴듯 수많은 광장에서 그리움에 넘쳐 사신도 찍으며 수령님 환공에 영원히 사는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니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하신 수령님의 말씀이 되겨졌다.



나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이었으며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한생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입니다. ...

진정 이 말씀은 인민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한생의 총화이며 그이께서만이 자부하실수 있는 대없는 기쁨입니다.

올해에 소학교에 입학한 손녀의 손목을 잡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서성구역 장경2동 58인민반에서 사는 배수남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우리 수령님이시오. 세계를 거슬러 보아도, 오늘이 이 행성을 둘러보아도 우리 수령님과 같은 성인은 없지요.》 일흔살 난 로인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수난을 겪는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류애에 거대한 공적을 쌓으신 우리 수령님의 한생이 뜨겁게 되겨졌다.

강도 일제를 거머쥐고 귀라귀라 하시며 백두방야를 주름잡으시던 백두산청년장군,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세계《최강》을 뚫어낸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조국의 존엄을 지켜주신 민족의 은인, 인민위원을 지론으로 이 땅에 인민이 주인된 행부의 광원을 일떠세우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세계적인 대정치공파속에서 반제자주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으신 회세의 정치원로...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고생을 다 겪으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 전설적위인에 대한 감사의 정이 광장의 이르는 곳마다에 뜨겁게 끓어치고있었다. 세기는 바뀌어도 어머니수령님의 혁명력사, 위대한 태양의 력사는 어이도 사람들은 좀처럼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태양의 성지에서 명절의 한때를 보내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아 못 잊을 추억속에 흥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 인민들의 모습을 보아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늘 가슴에 안고 살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깊이 느낄수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온정속에 누리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어머니수령님께 아뢰고싶은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안해와 학생인 두 딸과 함께 이곳을 찾은 평천구역 해운2동 49인

민반에서 사는 김영철동무의 말이였다. 첫눈에도 단란하고 행복해보이는 그의 가정은 위대한 태양의 은혜로 온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사회의 한 세포였다.

풍치수려한 룡라도에 홀몸하게 일떠선 문화휴식터에서 곱동어들의 재주도 보고 전차오락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던 그날에도 어머니수령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잠들지 못한 그들이였다. 어찌 그의 가정면이라. 창건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의 희한한 살림집들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 때에도,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마명을 향유하고 유투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에서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아안던 그날에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였던가.

승고한 도덕의리심으로 수령명생 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시고 불같은 정과 사랑으로 인민의 심장을 울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오늘날에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태양의 미소로 선군조선의 밝은 앞날을 뜨겁게 축복해주시는것이리라.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 최고사령관님을 누리는 크나큰 영광이 태양의 성지를 찾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자식들과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은 대성구역 6월9일동북고급중학교 교원 채영동무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더 잘 받드는것이 곧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생을 지켜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해빛같은 미소를 언제나 소중히 새겨안고 후대 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어느 한 과학연구기관에서 실장으로 사임하는 목철명동무는 말하였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우리 과학자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길에서 과학적 재능과 열정을 총괄발해나가겠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는 사람들은 천만이라도 그들이 다지는 땅은 하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길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사, 제자의 본분을 다하려라.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위대한 태양의 축복을 뜨겁게 받아안으며 사람들은 확신하였다.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선군조선은 백두산대국, 천하제일강국으로 누리에 찬란히 빛나리라라는것을.

글 본사기자 김승표 사진 본사기자 림 학 탁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에 즈음하여

##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만경대 방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에 즈음하여 김영남 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15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만경대혁명사적관에서 그들은

은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조국의 해방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군들의 고귀한 생애를 되새기며 전진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이 어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 시절을 보낸 만경대호텔 정자에 들어섰다.

추녀났은 초가집에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뜻을 키우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어머니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겼다.

그들은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땅에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번영하며 자위로 굳건한 인민대중중심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섬으로써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만경대혁명사적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전제 방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만년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리사들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리사들인 메히코르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도 아나야 구미에스,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공동리사장 조니 혼,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헨리 마찌코, 로씨야 신문 《자브트라》 책임주필 알렉산드르 브로하노브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리경성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과 관계부서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 경축 연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 경축연회가 15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장은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혁명의 새시대를 열어 놓으시였으며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강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장정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근로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부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수령, 회세의 정치원로의 혁명생애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우리 인민을 이끄시어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조국통일과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이민위원의 숭고한 리념이 꽃피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빛나게 구현된 사회주의조선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 위에 씨앗을 뿌리시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정제이다. 참으로 20세기는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업적과 위인적품으로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세기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영생하시고 이 땅에 주체번호로 빛나는 수령님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게 된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회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굳건히 계승발전시키신 결과이다. 연설자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 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조선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려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므로써

# 태양절 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 진행

태양절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15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재미동포전국연합회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

포대표단들,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되었다.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서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의 영생을 기원하였으며 21세기의 선군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병을 삼가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삼가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우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2돐을 맞으며 아름다운 평양에서 진행된 국제  
특상련맹-제27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대회에 초청하  
여준데 대하여 존경하는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공동으로 경축  
하는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이번 마라손경기대  
회에 참가한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  
으로 됩니다.  
우리는 이번 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체육정책  
과 체육에 대한 높은 사회적관심에 대하여 알게 되  
었으며 사람들이 평양시 여러곳에서 현대적인 체  
육시설들을 리용하면서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힘찬 투쟁  
을 벌리고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  
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각하의 현명 한  
령도 밑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  
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  
신합니다.  
국제특상련맹-제27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대회 참

가자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존경하는 각하께서 건강하  
실것과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국제특상련맹-제27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  
대회에 참가한 외국선수단들을 대표하여  
중국선수단 단장 리수화  
도이칠란드선수대리인 귤터 보클  
남아프리카선수대리인 데왈드 야보부스  
스테인  
에집트선수단 단장 아흐메드 이브라힘 엘와  
르다니 모하메드  
마다가스카르선수단 단장 라말란야오나  
이피 라코트드라베 노엘리랄라이나 한타  
리소아  
중국대륙선수단 감독 허적승  
르완다선수단 감독 느다치아이생가 진  
피에레  
우즈베키스탄선수단 감독 후비에브 라디크  
샤브가도비츠  
2014년 4월 13일 평 양

## (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올해의 겨울은 류달리 차고 추웠  
습니다  
하지만 나의 가슴은  
김일성대원수님 그리움으로 뜨거  
웠습니다  
태양절을 향해 달리는 마음으로  
불타었습니다  
하늘가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  
내 마음속에도 새겨져 빛나는  
태양  
그이는  
그이는 김일성대원수님  
102년전 4월 15일  
이께서 탄생하신 날  
이날은 조선인민의 앞길에  
운명의 태양  
희망의 태양이 솟아오른 날입니다  
사람들 가슴마다 진리의 빛발  
주신  
탁월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그이 지나셨던 신념과 의지는  
조선인민모두를 투사로 키우셨습  
니다  
102년은 흘러간 먼 세월  
그러나 나에게겐 가깝습니다

조선은 영웅이라고 격찬합니다  
주체의 나라 조선은 대대손손  
빛날것입니다  
아, 경사스러운 태양절의 아침  
나는 심장으로 꿰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대원수님!  
그이는 영원히  
조선인민과 함께 계십니다

세계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대원수님 만세!  
신군으로 사회주의조선을 지켜주신  
김정일대원수님 만세!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 이어  
가시는  
김정은원수님 만세!  
(필자는 웰남시인임)

## (시) 태양의 빛발은 영원하리라

세벌 가르쳐야 빠르덜로  
만경대에서 솟아오른 찬란한 태양  
조선의 삼천리에 밝은 빛 뿌렸네  
태양의 그 빛발속에  
백두산에서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렸었어라  
찬란한 그 태양은 김일성동지  
위대한 주체사상 창시하시었어라  
배양긴 나라를 총대로 찾아야  
한다시며  
갈길 물라 해메이는 인민들을  
뉘어주시었어라  
그이의 슬하에서 애국청년들  
일제를 무찔러 용감히 싸웠어라  
호르는 안개 물리치는 바람 거머  
취고  
장엄하게 서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백두산신시림속 이룩없는 소백수  
골에서  
조선의 광명성 탄생하시었어라  
그이는  
태양의 빛발 대를 이어 뿌려가실  
위대한 김정일동지  
아버님이신 김일성동지와  
어머님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  
어리신 아드님을  
백두산의 아들로 여세게 키우시었  
어라  
만경대에서 솟아오른 태양의 빛발  
오늘도 삼천리에 밝은 빛 뿌리  
여라  
백두산에서 시작된 길 간고하여도  
그 길은 불가항한것 아니어라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동지  
그이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통일의 그날 향해 앞으로 나아가  
리라  
(필자는 꾸마인사임)

# 태양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갈 신념과 의지



## 천만군민의 신념의 글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  
어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천만군민  
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인양 지심깊이 뿌리박은  
천연바위에 신념의 글발이  
빔났다.  
주체37(1948)년 8월 21일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뒤엎길  
순을 몸소 해치시며 해주시에  
있는 수양산에 오르시었다.  
력사의 그날 그이께서는 경  
치도 좋고 력사유적이 있는  
이곳을 문화휴식장으로 잘 꾸  
려 인민들이 마음껏 즐기게

할데 대한 은정넘친 교시를  
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황해  
남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  
들은 수양산성혁명사적지를  
백두산전설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교양  
장소로, 인민의 문화휴식장소  
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아버이수령님탄생 60돐  
을 맞으며 도안의 인민들은  
천연바위를 다듬어 한글자의  
노비와 너비가 15m, 8m나  
되는 불멸의 글발을 새겨넣  
었다.

《김일성동지 만세!》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가  
모셔왔던가.  
10대의 시절에 벌써 조국  
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진  
을 선포하고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  
러부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  
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  
어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  
위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색의 위인, 걸출한 령도자로  
인민의 다름없는 칭송을 받으  
시었다.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  
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영웅  
조선, 천리마의 나라, 주체조  
신으로 존엄떨치게 하시고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민,  
위대한 인민으로 되게 하신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을 우리 어찌 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있오라.  
동서고급의 그 어느 위인  
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  
와 세련된 령도력, 숭고한 혁  
명정신을 지니시고 심오한 혁  
명리론과 거창한 혁명론으로  
자주시대를 개척하고 빛  
내이시었으며 조국과 민족,

세계 자주화위업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은 오늘도  
주체의 태양으로 우리 인민  
과 함께 계신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위인이신 아버이수령  
님에 대한 다름없는 그리움의  
노래 강산을 진감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우리 조국, 주체조  
신을 만방에 더욱 빛내어갈  
신념의 맹세 하늘가에 메아  
리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준홍

## 숭고한 도덕의리와 태양의 력사

◇ 불빛 따사른 조국강산에 태양절경축분위  
기가 흘러넘친다.  
명절인색으로 단장된 수도의 곳곳에서 경축  
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  
록 더해지는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  
리움이 행사장마다에 굽어쳐흐른다.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제 16 차  
김일성화축전,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활짝 피  
운 기쁨을 안고 축전장에 모여온 수도의 근로  
자들의 가슴에도 태양민족의 긍지 넘쳐흐  
른다.  
우리 인민만이 아니다. 제 29 차 4월의 불  
천선에술축전에 참가한 외국의 벗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  
홍도의 송가를 격조높이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에 대한 애국은 지어낼수도 만  
들어낼수도 없다.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이 피는것처럼 위대한 태양  
을 모신 나라와 민족은 부강번영하고 백전백  
승한다는 진리가 천만의 심장에 더욱 깊이 새  
겨진다.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리  
신 위대한 업적, 그것으로 하여 아버이수령님은  
우리 인민과 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  
◇ 주체혁명의 혁명가는 자기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제일생명으로 간직 한 사  
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이 땅위에 일떠선 불패의 사회  
주의강국과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위업은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  
실이다.》  
수령과 혁명전사들 사이에 맺어진 동지적사  
판과 의리는 혁명승리의 정신적원천으로 된  
다. 자기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생  
명으로 간직한 사람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  
민을 위해 자신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 동지  
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조선혁  
명의 전로정을 이끄는 길에 말해두고있다.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부귀건설, 두단계의 사

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아버이수령님을 받들어 한몸바친 수천수만의  
열혈인간들은 바로 하나같이 숭고한 도덕의리  
의 소유자들이었다.  
우리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태양  
민족의 장구한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숭고한 도  
덕의리심을 지니고 당과 수령께 충정다한 유  
명무명의 영웅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값  
높은 삶이 서사시적화폭으로 아로새겨져있다.  
◇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  
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혁명동지애에 기  
초한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  
져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  
하여 아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신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마음속에 짙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  
원들과 근로자들이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깨  
달린 양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의 유훈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자기 부분,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  
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  
철해나가야 한다.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이 땅위에 현실  
로 꽃피고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  
들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한가지 생각을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하고 한마디의 말  
을 해도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며 한결을  
을 걸어도 원수님의 말걸음에 보복을 맞추어  
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아버이수령님의 넘원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수령님의  
력사, 태양민족의 력사가 이 땅에 영원히 흐르  
게 하여야 한다.

## 한없는 그리움, 불같은 실천

평원군 원화리당위원회 일군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이 넘쳐나는 평원  
군 원화리동농장!  
태양절을 계기로 원화리  
이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으로 세차게 꽃  
피어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 조직들은 위대 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나라  
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중중고수하  
고 빛내이며 당의 농업정책  
을 관철하는데로 당사업을  
지행시켜나가야 합니다.》  
분노들을 하나의 말고대려간  
리당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힘찬다는 신문독보  
와 강연, 해설담화도 참신하게  
진행하여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넘쳐있는  
그들의 가슴마다에 총칭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주  
고있다.  
며칠전 제 5작업반 1분조의  
씨뿌리기전투장에서였다.  
현황에 분조원들이 수십년  
전 불날 농장을 찾아오신  
아버이수령님께서 절절적절한  
포전에 들어서서 어린 맹장  
모의 일을 하나하나 세여보시  
며 살하게 키운 방도물  
가르쳐주시던 가슴뜨거운 이  
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버이수령님의 자로운

영상이 눈물결겨 어려와 눈시  
울을 적시는 농장원들을 둘러  
보며 리당비서는 말하였다.  
《힘튼마을농민들과 함께  
씨앗을 뿌리시던 전하의 불날  
을 비롯하여 수십차례 나  
우리 농장을 찾아주시고 몸소  
명예농장이 되여 주신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을 빛내이는데 자신의 열정을  
다 바쳐왔다고 땀땀이 자부할  
수 있게 오늘의 순간순간을  
값높이 빛내어갑시다.》  
농장원들의 가슴마다 소중  
히 간직된 절절한 그리움은 혁  
신의 불길로 타올랐다. 하여  
그날 분조에서는 해지기 전에  
성형알판에 의한 영양알모지  
뿌리기를 절조이로 끝내는 성  
과를 거두었다.  
제 7작업반 1분조, 제 11  
작업반 1분조를 담당하던 리  
당일군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메일 분조에서 나와 일도 함  
께 하고 가장살림이 어려운  
세대들을 물심방면으로 도  
와주면서 절세위인들에 대  
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리당  
일군들의 이신작적, 참신한  
정치사업은 농장원들을 감  
동시켰다. 모든 작업반, 분  
조들에서 씨뿌리기절정에서  
이 높은 절적수준에서 어김  
없이 집행된것은 물론이요  
가르쳐주셨던 가슴뜨거운 이  
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버이수령님의 자로운

였다. 리당일군들은 태양열날  
새은신건설 등 올해전투목표  
실현의 모든 고리들에서 대중  
의 가슴마다에 꽃고 있는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이 높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치사업을 잘하고있다.  
올해 봄 농장에서 또다시  
500mm짜리 태양열날새은실  
을 건설할 때였다.  
원화리농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몸소 파인나무모양  
어, 돼지를 비롯한 수백마리의  
집짐승들을 보내 주신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  
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돌  
격대원들의 심장을 격동시킨  
리당원회의일군은 자기 집  
에서 기른 돼지를 잡아 후방사  
업도 하고 밭이 닳도록 여러  
곳을 뛰어다니며 자재도 해결  
하고있다.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이 총  
폭발되었다. 태양열날새은실  
건설은 성과적으로 끝났고 지  
난해 몇몇일전에 건설한 두동  
의 남새은실에서는 오이며 배  
추를 비롯한 남새들이 많이 생  
산되었다.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간  
직된 절절한 그리움이 실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앞채를 메  
고 정치사업을 참신적인  
투쟁기풍으로 하여 인화방은  
더욱 꽃피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탄

## 불멸의 혁명업적을 심장깊이 체득시켜

위대성교양업종을 드세게 일  
어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혁명전적지상사들의 책임성과  
연할을 높여 그들이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  
길을 헤치시며 조국을 찾아주  
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답  
사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주도록 하고있다.  
삼지연군당위원회, 대흥단  
군당위원회, 해산시당위원회  
를 비롯한 도안의 당조직들에  
서는 그 옛날 류량민들의 한숨  
소리만 높인 교양에 사회주의  
적사상학원을 꾸려주시기 위하  
여 비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헌신에 대한 자료들을 가  
지고 교양사업을 벌려 대중  
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  
고있다.  
천리마강원합기업소 당위  
원회에서는 기업소에 어려웠  
는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으로  
집단적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  
퍼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곳 당위원회에서는 전후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면서 강계  
1만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

리를 쫓수 있다고, 나는 동부  
를 밟고 동부들은 나를 밟고  
이 난국을 타개해나가자고 하  
시며 천리마의 나래를 맡아주  
신 아버이수령님의 명도사적  
을 당원들과 로동자들에 대  
하여 깊이 체득시켜 그들이 오늘  
의 고고도의 앞장에 서도록  
하고있다.  
성진계강원합기업소 당위원  
회 일군들은 금속공업의 주체  
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놓아  
신 가슴뜨거운 사실들을 가지  
고 목보, 해설담화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사상교양사업  
들을 기동성있게 조직진행하  
고있다.  
합주군 동봉현농동농장, 사리  
원시 미곡협동농장, 풍천군 신  
암협동농장, 재명군 삼지강협  
동농장을 비롯한 농촌전부  
문의 당조직들에서는 일제하  
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제제》를 몸소  
발표하시고 사회주의농촌건설  
의 길을 확창히 밝혀주시  
어 아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농  
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고있다.  
특히 연안군당위원회, 청단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연백별

에 위치한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힘찬 포진권을 걸고  
계고신 아버이수령님의  
명도사적을 뜨겁게 되새겨주  
면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을 당원한 영농전투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만경대문화회복공장을 비롯한  
경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아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혁명  
력사도록,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들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심도  
있게 벌리고있다.  
개천지구청년평민합기업소 당  
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항  
일유격대나팔수가 되어 들끓는  
강막장들에서 아버이수령님의  
위대성교양을 격식과 틀이 없  
이 벌려 반부들의 가슴을 평평  
올려주고있다.  
얼마전 봉천탄광 혁신1강  
채탄3중대 막장에 들어간 연  
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작업의 협력을 리용하여  
아버이수령님의 위대성교양을  
참신하게 벌려 반부들의 가슴  
을 뜨겁게 올려주었다.

#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축복하는 4월의 축포성 수도 평양에서 래양절경축축포발사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경축하여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이날 저녁 주체사상탑이 솟아 있는 대동강반을 중심으로 김일성광장과 만수대언덕, 옥류교 등 수도의 곳곳은 걱정과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를 순간을 기다리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군중들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록해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도 축포가 발사될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20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축포가 하늘높이 터져올라 태양절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태양민족의 대통령님의 날, 대경사의 날을 만대에 빛내 가려는 듯 축포성은 천지를 진감하고 활화산처럼 터져오른 축포는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아름다움의 일만경을 펼쳐 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민족과 전세계가 우리려 받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려가는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 넘쳐흐르는 4월의 하늘가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영생축원의 마음을 담아 갖가지 색깔의 불보라, 꽃보라가 신비경을 펼쳐 보였다.

《태양절을 노래 하세》, 《만경대의 노래》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황홀한 불의 세계가 펼쳐놓은 아름다운 화폭을 크나큰 걱정속에 바라보는 군중들은 이 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주체의 광휘로운 빛날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비범한 사상리론헌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희세의 천 출위인 이신 김일성동지를 맞이하고 높이 모시어 우리 민족은 절세위인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태양민족으로 존엄떨치게 되었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번영하며 자위로 굳건한 우리 공화국의 위용과 오늘이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임을 증시하듯 축포의 화광이 주체사상탑을 부각시키며 밝게 비치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만대에 빛내이시며 불철주야의 선군혁명령도로 김일성조선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축포가 끝없이 터져올랐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전통, 하나의 궤도를 따라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인양 충천하는 불의 세계가 경축의 밤하늘가를 붉게 물들이었다.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힘을 파시하듯 눈부신 축포의 화광속에 무수한 줄축포들이 앞을 다투어 뿔어오르자 군중이 터진 환호성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환희와 걱정애 넘친 관람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절세위인들을 모시고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있어 반만년민족사가 빛나고 선군조국의 미래는 찬란할것이라는 확신이 어려졌다.

각양각색의 고공탄들이 터쳐 울린 천갈래, 만갈래의 불꽃보라들이 울려내며 천하를 천색만색으로 찬란히 물들이고 무수한 줄축포들이 곧바로, 교차로 치솟아오르며 불의 폭포가 되어 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무궁번영할 선군조선의 미래를 축복해주며 밤하늘가에 뿌려지는 오색명동한 불꽃보라들을 바라보며 군중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을

불멸의 강국으로 전진시켜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려왔다.

주체사상탑 봉화우에서 흰색의 굵은 불줄기가 터지며 누리를 밝게 비치고 은빛물결우에서는 춤추는 분수가 축포의 화광과 붉고 푸른 조명속에 회한한 기교를 펼치었다.

서로 각이한 방향으로 물줄기들이 솟구치며 아름다운 꽃다발들이 엮여지고 칠색명동한 무지개가 펼쳐졌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수놓는듯 갖가지 구슬같은 불꽃들도 드넓은 상공에 련속 꽃구름을 피워 올렸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날에 날마다 선경으로 전변되는 조국의 현실, 꽃피는 인민의 행복을 노래하는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의 선율은 군중들로 하여금 인민의 희망과 꿈이 꽃피는 나의 조국, 위대한 선군조선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더해주었다.

하늘땅을 밝게 물들이는 형형색색의 경축의 불보라들에 심취되어 눈길을 떼지 못하는 군중들과 환희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싶어 사진으로 남기는 청춘남녀들, 밤하늘가에 펼쳐진 황홀한 꽃구름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들...

갖가지 색깔과 모양의 불보라, 꽃보라가 펼쳐지는 밤하늘가에 《조국찬가》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며 경축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었다.

천만군민을 애국의 한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제2의 애국가의 품만찬 울림속에 창공높이 솟구쳐오른 축포탄들이 화광을 뿌리며 불폭포가 되어 쏟아져내렸다.

천변만화하는 불의 황홀경에 매혹되어 연해연방 환성을 터치는 관중들의 가슴가슴은 이처럼 장쾌하고 훌륭한 축포야경으로 태양절의 기쁨을 더해준 어머니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설레이었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로 폭풍쳐내달리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어린듯 불꽃들이 박동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기백있고 면서도 담차게 하늘을 제치고 축포의 피성, 불꽃이 터질 때마다 신비로운 음향이 팽활한 미래를 부르는 봄우뢰가 되어 울려 퍼졌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혼연일체가 말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최상최대의 국력임을 만방에 파시하듯 축포들이 련속 터져올라 밝은 빛을 뿌리었다.

4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영웅적진군길에 산악같이 일떠선 군대와 인민에게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수놓는듯 천변만화의 황홀경을 펼친 환희의 불보라 분사기자적음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2돐에 즈음하여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관련 환공연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관련 환공연이 15일 평양 대극장, 봉화에 대극장,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기쁨이 넘쳐나는 공연장소에는 세계를 이어오며 권위있는 국제적 대예술회합으로 빛나고있는 위인칭송의 축전에 참가한 예술인들과 우리 인민사이의 친선의 정이 차넘치고있었다.

김정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내근로자들이 공연들을 관람하였다.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주요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외국 손님들과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대표단들이 15일 평양 대극장, 봉화에 대극장,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기쁨이 넘쳐나는 공연장소에는 세계를 이어오며 권위있는 국제적 대예술회합으로 빛나고있는 위인칭송의 축전에 참가한 예술인들과 우리 인민사이의 친선의 정이 차넘치고있었다.

김정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내근로자들이 공연들을 관람하였다.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

행

태양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5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평양체육관광장, 개선문광장을 비롯한 평양시내 무도회장은 우리 인민의 앞길에 밝은 미래를 펼쳐준 민족통운의 날이며 자주시대의 태양이 솟아오른 인류사적대경사의 날인 4월의 봄명절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세계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서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나갔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 예술단의 여성독창 <내 마음엔제나 그이 곁에> 등의 종목들도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중국예술단(동방무단)의 위글극가부 <천산의 노래소리>, 벨라루스극무용단의 민속무용 <라보니하> 등은 해당 나라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생활모습을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감흥을 자아냈다.

또한 환공연무대들에는 인도네시아 드위키음악단과 벨라루아와르나극무용단 명배우일행, 이탈리아가극가수 등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이 축전무대에 안고온 종목들이 나왔다.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악기대미야할주단의 남성독창과 합창 <조선과 로씨야 영원한 벗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조로 두 나라 인민사이의 친선의 정을 깊이 느끼게 하였다.

공연무대들에서 출연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칭송하는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마음을 예술적책독으로 숭엄하게 펼쳐놓아 관중들을 격동시키었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맺어진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두터운 정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진행된 공연들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출연자들의 세련된 기교로 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태양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5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평양체육관광장, 개선문광장을 비롯한 평양시내 무도회장은 우리 인민의 앞길에 밝은 미래를 펼쳐준 민족통운의 날이며 자주시대의 태양이 솟아오른 인류사적대경사의 날인 4월의 봄명절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세계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서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나갔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리, <만경대의 노래> 등 노래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지나는 20세기의 년대들을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며 휘황찬란한 21세기에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청년학생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우리의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노래에 맞추어 춤바다를 이어갔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평도자>, <그 봄이 제일 좋아> 등의 노래선율에 맞추어 흥겨운 춤바다를 펼쳐가는 참가자들의 열광마디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청년중시의 새 역사를 빛내여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영광을 안고 오늘의 총진군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펼쳐갈 선군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인듯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 등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무도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발걸음>을 비롯한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는 무도회장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기를 높이 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평도리 백두의 위업을 꽃잎이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혁명적열의로 끓어번지었다. 이날 각 도시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청년중시의 새 역사를 빛내여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요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외국 손님들과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대표단 성원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 위대한 태양의 력사 천만년 빛내여가리

각지에서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 예술단의 여성독창 <내 마음엔제나 그이 곁에> 등의 종목들도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중국예술단(동방무단)의 위글극가부 <천산의 노래소리>, 벨라루스극무용단의 민속무용 <라보니하> 등은 해당 나라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생활모습을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감흥을 자아냈다.

또한 환공연무대들에는 인도네시아 드위키음악단과 벨라루아와르나극무용단 명배우일행, 이탈리아가극가수 등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이 축전무대에 안고온 종목들이 나왔다.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악기대미야할주단의 남성독창과 합창 <조선과 로씨야 영원한 벗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조로 두 나라 인민사이의 친선의 정을 깊이 느끼게 하였다.

공연무대들에서 출연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칭송하는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마음을 예술적책독으로 숭엄하게 펼쳐놓아 관중들을 격동시키었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맺어진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두터운 정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진행된 공연들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출연자들의 세련된 기교로 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요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외국 손님들과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대표단 성원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청진주재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총령사관 성원들 경모의 정 표시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태양절에 즈음하여 15일 청진주재 중화인민공화국총령사관과 로씨야련방총령사관 성원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 제16차 김일성화축전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제16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생애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바야르토크트 호 엔코호바르스 몽골 김정일화협회 대표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을 이렇게 훌륭히 보존하고있는 사실과 만경대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다. 조선인민이 그리워 얼마나 흥분하고있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 왕동평 중국 단둥 김일성화 김정일화회실 총경리는 만경대를 방문할 때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마음이 숭엄해진다. 조선인민들과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만경대를 방문하는것을 보면서 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뿐 아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성하신다는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 해주항과 남포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5일 해주항과 남포항에서 진행되었다. 모임들에 앞서 참가자들은 해주시와 남포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로 드려였다.

중국선박 <순발 1>호, 벨라제국선박 <암구>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명절로 되었고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민중애국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부총비서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민중애국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부총비서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5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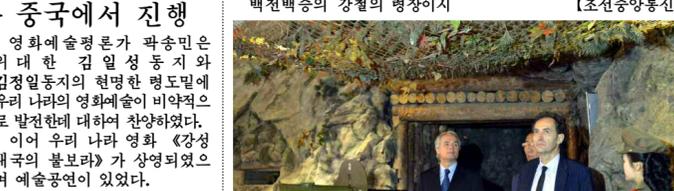
## <태양절경축 조선문화예술의 밤> 행사 중국에서 진행

<태양절경축 조선문화예술의 밤> 행사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중국 베이징유지향문화회관공사, 영화예술부분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

## 프랑스 AFP통신사대표단 여러곳 참관

프랑스 AFP통신사대표단 여러곳 참관

프랑스 AFP통신사대표단 여러곳 참관



프랑스 AFP통신사대표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프랑스 AFP통신사대표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서 첫기야영 시작

민중애국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부총비서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5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민중애국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부총비서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5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 국제특상련맹-제27차 만경대상마라손 경기대회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국제특상련맹-제27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